

『사피라와 노예 소녀』의 장애, 노화, 섹슈얼리티 연구*

김미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질병과 돌봄: 사피라와 레이첼
3. 노년의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피라와 낸시 그리고 헨리
4. 인종과 섹슈얼리티: 사피라와 낸시 그리고 톨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윌라 캐더의 『사피라와 노예 소녀』에 나타난 장애, 노화, 섹슈얼리티의 교차적인 관계를 탐구한다. 우선, 주인공 사피라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돌봄 역할을 19세기 여성의 성역할 규범 차원에서 살펴본 후, 이 소설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주인공 사피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7657)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의 잔혹한 행위 즉 순진한 노예 소녀 낸시를 강간의 위험에 빠트리는 악행의 기원에 대해, 장애를 지닌 노년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것의 공격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노년의 생애를 단순히 ‘쇠퇴’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변화된 노년의 욕망이자 섹슈얼리티에 주목하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물라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백인의 편견과 환상이 드러나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인종과 섹슈얼리티의 불평등한 재현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윌라 캐더, 『사피라와 노예 소녀』, 장애, 노화, 섹슈얼리티

1. 들어가는 말

1940년에 출판된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마지막 장편소설 『사피라와 노예소녀』(*Sapphira and the Slave Girl*)의 주인공 사피라 도더리지 콜버트(Sapphira Dodderidge Colbert)는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나이 들고 병이 들어 쇠약해진,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백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낸시 틸(Nancy Till)은 십대의 젊고 건강한 흑인 혼혈 노예 소녀이다. 백인 노예주 사피라는 남편인 헨리 콜버트(Henry Colbert)와 그의 거처 청소를 담당하는 노예 소녀 낸시 사이의 ‘친밀함’을 부정(不貞)한 관계로 의심한다. 그리고 사피라는 헨리의 조카인 젊은 백인 남자 마틴 콜버트(Martin Colbert)를 이용해 마치 한편의 “연극(play)”¹⁾을 기획하듯 낸시를 겁탈의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계획한다. 사피라의 초대

1) Willa Cather, *Sapphira and the Slave Girl*, London: Virago, 1986, p. 199.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함.

받은 마틴이 콜버트 농장에 머무는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낸시에게 가해지는 강간의 위협은 독자가 백인 노예주 사피라의 잔혹성을 읽어내기에 충분해진다.

이 소설의 핵심적 사건으로서 사피라가 마틴을 이용해 낸시를 위협에 빠트리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된 지점, 즉 사피라가 낸시를 대하는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헨리, 낸시 그리고 사피라의 삼자 관계에서 ‘아픈 몸’의 나이 든 여성이라는 사피라의 자각의 시점이기도 하다. 사피라가 휘두르는 폭력의 기원을 백인 노예주가 가진 권력의 측면만이 아니라 노년의 시기, 질병의 자각, 섹슈얼리티의 인식과 그것의 상실 그리고 그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은 집필 시기를 염두에 둘 때, (손목 통증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년의 작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밀접히 연관된다. 그렇기에 ‘노년의 욕망하는 주체’의 문제를 저자 캐더가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그전까지 남부에 관한 작품을 쓴 적이 없는 캐더가 아프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남부를 묘사하는 데 있어 노화와 장애라는 저자 자신의 정체성이 인물과 시대에 대한 재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껏 ‘노년의 욕망하는 주체 혹은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이 소설을 읽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사피라의 변화, ‘비밀관성’을 노년의 욕망하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탐색함으로써, 노년과 장애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과거 한때 도더리지 가문의 장녀로서 아버지의 농장과 사업을 잘 관리해낸 건강하고 유능한 여성이던 사피라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플랜더스(Flanders) 출신의 이민자 헨리와 결혼하고 아버지의 농장이 있는 윈체스터(Winchester)를 떠나 좀 더 외진 곳인 백크리크(Back Creek)에 정착한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1856년,

소설의 시작점에서 나이 든 사피라는 아픈 몸으로 휠체어에 의존하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폐에 물이 차오르는 “부종”(dropsy) 때문에 보행장애를 겪고 휠체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10). 이에 반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흑인 가정부 틸(Till)의 유일한 딸이자, 사피라의 남편 헨리가 머무는 공간의 청소를 담당하는 낸시는 젊고 예쁜 데다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1850년대 버지니아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 노예 소녀 낸시는 농장주 사피라와의 관계에서 노예주와 노예 사이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젊음과 건강’/‘나이 들과 질병’이라는 ‘쇠퇴 이데올로기’²⁾의 관점에서 그녀는 사피라가 현재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충만한’ 주체인 셈이다. 게다가, 19세기에는 (소설에서 아버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낸시와 같은 흑백 혼혈의 “황색 여인”(the yellow girl)(17)에 대해 ‘물라타(mulatta)의 과잉 섹슈얼리티’라는 백인의 인종적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다. 물라타의 ‘과잉 섹슈얼리티’는 장애를 지닌 노년의 백인 여성에게 기대되는 섹슈얼리티, 즉 무성(asexuality)과 대조를 이룬다. 요컨대, 건강과 질병, 젊음과 노년, 비장애와 장애 그리고 노년의/혼혈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사피라의 ‘악마적’ 놀이의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피라와 헨리 부부, 딸 레이첼과 손녀들 그리고 그 부부의 가정부 틸과 틸의 딸 낸시, 틸의 할머니 ‘늙은 제제벨’(Old Jezebel)

2) 쇠퇴 이데올로기는 마거릿 모건로스 길레트(Margaret Morganroth Gullette)의 용어로서, 노년=쇠퇴로 보는 사회 문화적 통념을 일컫는다. 길레트의 주장에 따르면, 노화(aging)는 문자 그대로 ‘나이 들’의 의미이고,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 나이 들의 과정에 있지만, ‘항-노화’(anti-aging)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노화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 ‘실패’ 혹은 ‘쇠퇴’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Against ‘Aging’—How to Talk about Growing Older”, *Theory, Culture & Society*, 2018 35(7-8), pp. 251-170. 참고)

까지 사피라의 농장은 백인 가정 3세대와 흑인 가정 4세대를 포함해, 다른 인종, 다른 계급, 다른 몸, 다른 섹슈얼리티가 복잡하게 얽혀 관계 맺는 공간이다. 바꿔 말하면, 중심인물인 사피라와 낸시의 관계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당대 인종적 권력 관계에서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 노년,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인종, 노년, 섹슈얼리티 그리고 질병과 장애가 사피라와 낸시의 관계에서 일방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함으로써 인종주의와 같은 당대의 지배적 관점으로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재현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설의 중심적 시간에 해당하는 노년의 사피라가 경험하는 질병과 장애, 그리고 그녀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사피라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돌봄의 문제를 19세기 여성들의 성 역할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젊은 시절 사피라에게 부과된 돌봄의 문제를 탐색하는 일은 노년 여성의 삶과 욕망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여성의 질병과 돌봄: 사피라와 레이첼

캐더의 전기 연구자인 새런 오브라이언(Sharon O'Brien)은 캐더 소설에 재현되는 질병의 문제를 작가 자신의 질병 경험과 연관 짓는다. 오브라이언의 설명에 따르면, 캐더는 아주 오랜 기간 많은 종류의 질병을 앓곤 했다. 독감, 요통, 기관지염, 맹장염, 폐렴, 유방염 등 각종 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병원 생활을 반복했으며, 마지막 장편소설인 『사피라와 노예 소녀』를 쓸 무렵에는 손목의

인대 파열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집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캐더는 반복되는 병증과 함께 우울의 정서에 휩싸이는데, 그와 같은 고통은 1932년 조 아킨스(Zoë Akins)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드러난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몸의 변화에 대한 그녀의 절망적인 심정이 드러난다. “45세가 되면 죽음이 비처럼 여겨진다는 점, 그것은 엄혹한 진실입니다. 50세가 넘으면 그 폭풍우는 그야말로 맹렬해지죠.”(O’Brien 146) 오브라이언은 캐더의 인생 후반부 질병과 장애가 눈에 띄게 찾아진 점을 염두에 둘 때, 질병과 장애가 그녀의 자아 정체성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소설적 재현과도 연관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피라와 노예 소녀』의 집필 시기 작가 자신이 경험한 손목 통증과 그로 인한 통제력의 상실은 소설 속 주요 인물인 사피라가 처해 있는 상황,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를 지닌 몸, 휠체어에 앉은 몸의 재현에 직, 간접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브라이언의 경우 캐더 자신이 경험한 질병의 종류들을 연대기적으로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질병과 정체성 의식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했다면, 낸시 친(Nancy Chinn)은 현대 의학에 대한 캐더의 열정적인 관심과 함께 작품에 재현된 돌봄 혹은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당대의 의료 집단과의 관계와 함께 지적하고 있다. 캐더는 어린 시절 의사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보조하는 일을 기꺼이 맡았고, 14세부터 18세까지 “William Cather MD.”라는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의학과 실험에 열정을 보이며 의대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의학에 관심을 보였다(Trowse 209). 특히 캐더의 소설에는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일례로, 캐더의 ‘대평원 삼부작’의 하나인 『종달새의 노래』(*The Song of the Lark*)(1915)의 주인공 티어(Thea)와 각별한 우정을 나

누는 닥터 아치(Dr. Archie)는 티어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 다른 예로, 1923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우리 중 하나』(*One of Ours*)(1922)에서는 주인공 클로드 휠러(Claude Wheeler)가 1차 대전에 참전하는 시점에 유럽을 향한 배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상황이 그려지고, 이때 전염병에 관한 현대 의학의 지식을 활용해 죽어가는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의사 트루먼(Truman)의 활약이 자세히 서술된다. 『사피라와 노예 소녀』에도 이와 같은 의사의 모습이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예를 들면, 사피라의 주치의 역할을 한 닥터 클레빈저(Doctor Clavenger)는 시골 의사라면 해내지 못할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지적이고, 직업에 헌신적인(intelligent, devoted to his profession)” 자질을 갖춘 신사로 묘사된다(257-58).

현대 의학에 대한 저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듯, 여러 소설에 ‘전염병에 잘 대처하는’ 의사들이 등장함으로써 현대 의학의 긍정적 측면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성이 담당해온 주체적인 ‘치유자’ 역할이 재현되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 의료계에서 여성들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의료행위의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돌봄 시중이 아니라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돌봄과 의료행위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아픈 자들을 돌보았다. 이 소설에서 사피라와 그녀의 딸 레이첼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은 당대 등장한 현대 의학에 대한 저자의 일방적인 추앙만 보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캐더 자신의 질병 이야기와 현대 의학에 관한 그녀의 특별한 관심은 이 소설의 화자, 즉 어린 캐더를 암시하는 화자의 할머니 레이첼과 레이첼의 어머니 사피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픈 몸’과 ‘돌봄’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지적하는 데서 유의미하다. 노년의

사피라는 돌봄이 필요한 아픈 몸이기도 하지만 그녀 역시 젊은 시절 농장 관리 일만이 아니라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레이첼의 경우 남편과 자녀 둘을 전염병과 영아 사망으로 잃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마을에서 치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인물로 그려진다. 사피라와 레이첼은 사실 작가 자신의 주요 관심사였던 ‘질병’과 그에 따른 ‘치료’와 ‘돌봄’의 주제와 연관해서 19세기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창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피라의 경우 그녀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 농장을 관리하던 유망한 사업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병상에서 죽기까지 3년간 그를 ‘돌보는’ 일을 떠맡았다. 결혼하고 독립한 동생들과 달리 사피라는 아버지를 끝까지 돌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는 “도더리지 장군 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이민자 출신의 남자 헨리와 돌연 약혼을 선언하고 도더리지 농장을 떠난다(23). 플랜더스 출신의 이민자와 도더리지 집안 딸의 혼인에 대해 사피라의 친구들은 “한참 추락한 것”(a long step down)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23). 그들에게는 19세기 중후반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초기 백인 정착민의 위계적인 우월의식이 있었다. 그런데도 사피라는 헨리와 서둘러 약혼하고 삼촌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 백 크리크에 정착한다. 그곳에 제분소를 짓고 헨리가 제분소 관리에 전념하는 동안, 사피라는 농장 관리를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농장을 일구는 일에 참여한다. 19세기 미국의 경우, 여성들은 농장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한데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떠맡곤 했다.³⁾ 사피라의 경우처럼, 여성들 인생 후반의 질병 혹은 ‘아픈 몸’은 가

3) Ehrenreich & English, *Witches, Midwives & Nurses : A History of Women Healers* (New York: The Feminist Press, 2010), p. 87. 참고할 것.

족에 대한 헌신적인 ‘돌봄’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소설에서 이러한 돌봄의 역할은 사피라에서 레이첼로, 즉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진다.

레이첼은 실제 캐더의 외조모인 레이첼 보크스(Rachel Boaks)를 모델로 했다. 캐더의 외조모는 리조트를 운영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캐더는 이러한 외조모를 매우 존경했다.⁴⁾ 소설의 레이첼은 어머니 사피라가 보기에는 “무뚝뚝(sullenness)”한 성격의 인물이다(132). 노예 소유에 적대적이었던 그녀가 특히 어머니에게 과묵했던 이유는 노예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 특히 “냉소적인 비난(sarcastic reprimand)”을 퍼붓는 태도 때문이었다(137). 열여섯 살 때 그녀는 서른 살의 마이클 블레이크(Michael Blake)와 함께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는 집(a home where she had never been happy)”을 떠나 워싱턴으로 간다(134). 세월이 흘러, 결혼 13년 만에 레이첼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딸 둘만을 동행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다. 돌아온 레이첼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노예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어머니와 암묵적으로 대립하며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위험에 처한 노예 소녀 낸시를 구해줄 수 있는 콜버트가의 유일한 백인이다. 낸시가 마틴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될 아슬아슬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러 간 쪽은 어머니인 틸이 아니라 레이첼이다.⁵⁾ 레이첼은 낸시를 캐나다

4) Hermione Lee, “New Introduction”, *Sapphira and the Slave Girl* (London: Virago, 1986), 참고.

5) 낸시가 어머니인 틸 대신 레이첼에게 도움을 구하는 점에 대해 토니 모리슨은 ‘흑인 모성 부재’를 그리는 백인 여성 작가의 한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Harvard UP, 1992, 참고). 사실 이 부분은 낸시가 가장 편안해하는 곳을 틸의 거처로 묘사하는 점, 틸은 백인 여성으로부터 가정부 역할을 철저히 해내도록 교육받은 인물로 그려지는 점, 그런 틸은 아픈 사피라 대신 집안을 청결히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 당대 흑인들이 백인 가

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레이첼의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재현되는 그녀의 ‘돌봄’ 역할이 노예 해방이라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할 때, 백인의 노예 해방 서사 만들기로서 비판될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돌봄 역할이 강조되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레이첼의 ‘돌봄’ 역할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의 방식으로 도 재현된다. 예를 들어, 레이첼은 백 크리크로 돌아와 살면서, 외진 고지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초와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돌본다. 레이첼은 산등성이에서 압소한 마리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는 링어 부인(Mrs. Ringer)을 “더 좋은 혈통의 사람들(who came of better blood)”이나 농장과 가축들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링어 부인이 다쳤을 때 “붕대와 테레반유 그리고 약용식물(bandages and turpentine ointment and arnica)”을 제공한다(118). 레이첼은 가난한 이민자 링어 부인의 가족을 돌본다.

한편,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 출신의 링어 부인은 “읽거나 쓸 수 없지만” “계절의 기호들, 숲 생명체의 활동 의미”를 알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다(119). 더욱이 링어 부인의 아들 론디스(Lawndis)는 “내반족”(club

정에서 담당한 역할들과 그에 대한 백인 저자의 재현 방식 등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종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던 것으로 알려진 캐더가 소설 속 인물들이 보인 양가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글을 참조. (이승은, 「남부역사의 짐과 양가적 서사: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새파이라와 노예 소녀』(*Sapphira and the Slave Girl*)」, *현대영미소설* 25. 3, 2018, 77-104.)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의 문제점은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백인 남성 집단으로부터 치료 역할이 배제된 여성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도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돌봄’을 ‘해방’과 동일시함으로써 백인의 역할이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돌봄 역할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feet)과 “굽은 등” 때문에 “절룩거리는” 장애가 있지만, 어머니와 레이첼을 동행해 산속에서 억울하게 폭행당하는 아이를 구해낸다 (120, 122). 레이첼, 링어 부인, 론디스는 돌봄의 문제에서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당대의 ‘의료 전문직’의 역할과는 차별화되는 돌봄의 역할, 인종과 젠더의 경계를 넘어선 ‘치유자’로서의 역할이 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사피라, 레이첼, 링어 부인, 론디스를 통해 재현되는 질병과 장애의 의미 그리고 돌봄의 역할은 20세기 전후로 생성 발전한 현대적 의료 담론들의 주장 속에 있는 젠더 편견과 인종 편견에 거스른다. 20세기 전후 등장한 ‘의료 전문직’ 집단이 주로 동부의 엘리트 백인 남성으로 구성됨에 따라, 그들의 의학 담론에는 가부장적인 사고와 우생학적 인종차별의 의식이 점철되어 있었다. 이른바 ‘현대적인’ 의학 담론이라고 하는 연구서들에는 여성을 ‘불완전한 성’(defective sex)으로, 그리고 어두운 피부의 이민족을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을 통해 현대 의료 담론이 여성과 이민족 혹은 피부색이 가무잡잡한 인종을 쉽게 ‘질병화’했다면, 이 소설에서는 다르게 재현된다. 여성의 질병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 편파적으로 부과된 짐의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돌봄 역할이 전문직 의사의 보조 역할로서가 아니라 아픈 자와 소외된 자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보는 치유자 역할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사피라와 레이첼의 질병과 돌봄의 재현을 통해 19세기 여성의 돌봄 역할과 질병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노년의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피라와 낸시 그리고 헨리

허미온 리(Hermione Lee)는 낸시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피라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아프고 불구의 몸이 된(sick, crippled)” 여성의 “줄어든 권위에 대한 보상”(a compensation for her diminished authority)의 의미로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한다(xviii). 또한, 앤절라 M. 설래스(Angela M. Salas)는 백인 노예주라는 권위를 이용해 아름답고 젊은 낸시를 위험에 빠트리는 계략의 사악한 “저자(author)”이자 놀이의 “창조자(creator)”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피라의 행위를 “남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나이 들어 병으로 죽어가는 여자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좌절(deep frustration at her powerlessness as an aging, dying woman in a world in which men hold the ultimate power)”이 빚어낸 놀이로 해석한다(106). 이렇듯 리와 설래스는 ‘아픈 노인 여성의 무력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와 설래스의 주장은 사피라의 행위, 즉 낸시에 대한 위협적인 계략을 조종한 행위에 대해 아픈 노인 여성이라는 질병과 장애 그리고 노화의 정체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연민과 동정을 불러내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백인 여성의 질투에 따른 폭력의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 엄밀히 사피라를 ‘아픈 노인 여성’으로 제한해서 읽는 것은 현대 노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에이지즘’(ageism)⁶⁾이자 ‘쇠퇴 이데올로기’의 반영에 머무는 것일 수 있다. 노년을 “질병의 집결”(a collection of diseases)(Gullette 2018: 258)로 환원하고 ‘노화’를 단순히 ‘쇠퇴’와 동의어로 읽는 것은 오히려 노년에 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으로서 노인

6) 1969년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가 만든 용어로서 ‘에이지즘’은 문화 내에 있는 다양한 ‘노인차별주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차별주의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길레트는 ‘쇠퇴’와 ‘노년’을 동일시하는 현상에 대해 노화에 대한 편협한 쇠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한다. 길레트의 노년 연구 관점에서 볼 때 사피라의 행위를 ‘아픈 노인 여성의 무력함’으로 읽는 것은 사실 에이지즘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아프고 불구의 몸이 된 여성”에 대한 ‘쇠퇴 서사’의 해석에 머물기보다는, 사피라의 사악하고 폭력적인 놀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장애와 노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 사실 사피라가 낸시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사피라와 헨리 그리고 낸시의 삼자 관계에서 사피라가 자신의 욕망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과 관련을 맺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엄밀히 장애나 노화에 관한 이해에서 쉽게 제외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노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사피라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사피라를 단지 아픈 노인 여성으로 환원함으로써 섹슈얼리티, 욕망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에 관한 부정적인 정형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화를 단지 ‘노쇠’로 보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노년의 성을 ‘무성애’로 축소하는 경향이다. 길레트는 노년의 섹슈얼리티를 주목하는 거의 최초의 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노년의 섹슈얼리티가 시사하는 혁명성을 지적한다. “급진적으로 언급되는 노년의 섹슈얼리티는.....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어쩌면 성적 생애 경로 전체를 퀴어화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역사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성 혁명처럼 보인다”(Gullette 2011:148). 길레트는 이전까지는 무시되어 왔던 노년의 성에 대해 “생애 경로 전체를 퀴어화하는 것”으로서 “급진적인 성 혁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년 연구에 퀴어 이론을 교차시키고 있다.

퀴어 이론가 잭 헬버스탐(Jack Halberstam)의 설명에 따르면, “생애 경험의 전형적인 표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탄생, 결혼, 재생산, 죽음”(2)에서 ‘결혼’과 ‘재생산’ 부분은 퀴어가 규범적인 성과 경합하는 자리다. 이른바 ‘퀴어 시간성’(Queer Temporality)은 규범적인 시간성 혹은 제도화된 생애 경로 바깥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지향한다. 퀴어 시간성은 “전형적인 표지들”을 기념하는 규범적인 시간을 넘어서 다양한 대안적인 시간의 배열을 선호한다. 따라서 생애 경로를 “퀴어화한다”는 의미는 생애의 어느 구간은 성적이며 어느 구간은 성적이지 않다는 시간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시간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혹은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퀴어 시간과 공명한다. 비생식적 시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퀴어화’는 제도화된 ‘목적론적’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혁명적 혹은 저항적일 수 있다.

제인 갤럽(Jane Gallop)은 최근 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년의 ‘퀴어화’ 전략을 통해 이성애 정상성이라는 제도화된 성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섹슈얼리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갤럽은 여성의 경우 환경 이후의 섹슈얼리티(달리 말해 중년 이후의 시간과 섹슈얼리티),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수술 이후의 섹슈얼리티를 노화와 장애 그리고 퀴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환경 이후의 섹슈얼리티와 전립선암 수술 이후의 섹슈얼리티가 노화와 장애의 시간을 각각 재현한다고 보면, 이 시기의 섹슈얼리티는 생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갤럽은 환경 이후의 섹슈얼리티나 암 수술 이후의 “성적 재교섭”의 친밀성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성의 급진성, ‘다형적으로 도착적인’(polymorphously perverse) 섹슈얼리티를 구현한다고 본다. 갤럽의 지적에 따르면, “장애인이 개발한 다수의 창의적인 성”이 규범적인 성의 틀에서는 용인되지 않

는 것일 수 있다. 장애의 성이 주류 섹슈얼리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환경 이후 혹은 암에 걸린 몸은 “불쌍하거나 열등한” 몸이 아니며, 그들의 도착적인 섹슈얼리티 양상은 “편협한 이성애 규범의 틀 안에서 성을 정의하는 범주들을 깨부수고” “위반의 핵심적 장소”⁷⁾로 재개념화될 수 있다.

노년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퀴어의 시간성 문제와 연관해서 『사피라와 노예소녀』로 돌아오면, 사피라를 특징짓는 노화 혹은 늙음이 퀴어 섹슈얼리티 혹은 퀴어 시간성의 ‘반규범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사피라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노화를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첫 번째 정형화인 ‘쇠퇴 서사’가 있고 동시에 ‘쇠퇴 서사’에 도전하는 욕망의 가능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서사가 그려진다.

사피라는 젊은 시절 매우 활기차고 정열적인 여성이었지만, 노년에 들어서며 폐에 물이 차오르는 ‘부종’을 5년 정도 앓고 있는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시종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정지된’(immobile) 몸이다. 그녀는 방문객이 오면 가까스로 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럴 때면 드레스 안으로 기형적인 발목을 숨기곤 한다. 그리고 사피라가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부분이 남편인 헨리보다 4살 연상이라는 점이다(10). 그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헨리와의 비교를 통해 사피라의 노화와 장애를 강조하는 듯 보인다. 특히, 20년 전 부부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에서 사피라는 화려한 옷차림과 “활력 넘침, 밤색 머리, 짙은 홍조”(42)를 지녔지만, 노년의 사피라는 “창백한”(15) 안색을 지니고 그녀의 “납빛처럼 희

7) Gallop, *Sexuality, Disability, and Aging: Queer Temporalities of the Phallus*, Durham: Duke UP, 2019, p. 4. 엄밀히 이 용어는 갤럽 자신의 용어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갤럽은 이 용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와 노년의 섹슈얼리티가 가진 급진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고 부어오른 무릎”(32)이 부각된다. 반면에 헨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초상화 속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풍성하고 검은 머리”와 “넓고 붉은”(42) 얼굴의 활기참을 유지하고 있다.

사피라와 헨리의 대조적인 묘사만큼이나 사피라와 낸시 역시 대조적으로 재현된다. 예를 들면 낸시의 “밝은 미소”, “빛나는 눈”, 가늘고 날씬 손“이 돋보이고, 아침이 되면 그녀는 “꽃과 새들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근심 없는”(17-8, 67) 모습으로 헨리의 제분소 방을 청소하곤 한다. 낸시에게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182)는 사피라를 묘사하는 만성적인 “병(malady)”(15)과는 대립적인 특징으로서 젊음과 건강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마틴의 “뻔뻔함(impudence)”이 사피라의 눈에는 젊음의 특권으로 보이며, 그가 무심한 태도로 사피라를 “늙은 여성 환자가 아닌 듯”(154) 대우할 때 오히려 그녀의 노년은 더욱 열기왕성한 젊음과 대조를 이룬다. 헨리, 낸시, 마틴 vs 사피라의 비교를 통해 젊음/늙음, 건강/질병의 재현이 돋보이고, 이러한 대립적 재현에서 사피라는 젊음과 건강의 ‘상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이처럼 이 소설에는 사피라의 노년을 쇠퇴와 동일시하는 쇠퇴 서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병상에 있는 제제벨과의 대화는 노년에 대한 사피라의 인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다. 사피라는 자신이 태어날 무렵 도터리지 가문으로 팔려온 제제벨을 매우 아낀다. 95세가 된 제제벨은 버지니아 태생의 노예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1780년대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 노예선을 타게 된 인물이다. 늙은 몸으로 오두막에 누워 있지만, 젊은 시절 그녀는 노예선의 형편없고 비참한 상태에서도 백인들에게 용감하게 저항했던 인물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항해사를 사냥개처럼 물어뜯고” 선장 앞에서 “태연한” 태도로 “자비를 구하지 않는” “황소만큼 힘센” “암컷 고릴라”와도 같았다고 묘사된다(93, 95). 그런데 젊고 강인했던 과거

와 달리 늙은 제제벨은 “이가 전부 빠진” 데다, “늙고 야윈 회색 원숭이처럼 보이는”, 쇠약한 노인이 되었다(86). 사피라는 제제벨이 병상에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가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그때가 좋았어. 너처럼 나도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어.”

“마님, 윈체스터 의사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대요? 마님을 위해 아무 조치도 못하구요.”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말하면 안 돼. 숨을 가다듬어봐.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을 피하지 말고 물러설 때가 된거야.”

“Those were good times, Auntie. I’ve been house-bound for a long while now, like you.”

“Oh, Missy, cain’t dem doctors in Winchester do nothin’fur you? What’s dey good for, anyways?”

She broke off with a wheeze.

“There now, you mustn’t talk, it catches your breath. We must take what comes to us and be resigned.”(87)

“원숭이”, “황소”, “고릴라”, “사냥개”처럼 동물에 비유되는 점에서 흑인 노예 제제벨에 대한 묘사는 당대의 인종차별적 경멸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그 표현들 속에서 늙은 제제벨에 대한 묘사와 달리 ‘과거’의 강인함, 저항, 젊음이 특별히 강조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사피라는 나이 든 제제벨에 대해 인종적 차이를 넘어 동류의식을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동류의식은 과거의 젊음과 건강을 상실한, 늙고 장애를 지닌 몸이라는 정체성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헨리, 낸시, 제제벨과의 관계에서 사피라가 재현하는 노년의 ‘정지된 몸’은 상실의 의미를 강화하는 ‘쇠퇴 서사’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 낸시에 대한 사피라의 변화된 태도는 쇄퇴 서사를 ‘훼방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사피라의 변화는 그녀가 마틴을 이용한 계책을 세우기 1년 전 그녀가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 대화는 사피라의 욕망과 섹슈얼리티 문제를 주목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작동한다. 화자에 의해 특별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소개된 이 일은 “1년 전 5월” 요리를 담당하는 노예 리지(Lizzie)와 낸시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사피라가 우연히 듣게 된 일이다.

그녀가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지 목소리가 아니라 낸시의 목소리였다) “리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참고 들을 수 없군요. 주인님한테 가겠어요.”

리지는 크게 웃는다. “거봐라, 너는 또 주인님께 가겠지! 내가 늘 말하잖니!” “이런! 주인님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 말이다. 좋지! 그런데 너 너무 많이 해. 딱 마음이 드니 좋은 거야. 이 노랑등이 애야!

리지의 **음탕한 웃음** 사이로 정신 나간 듯한 어린 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This was what she heard (not Lizzie's voice, now, but Nancy's): “You dasn't talk to me that way, Lizzie. I won't bear it! I'll go to the Master”

Then Lizzie, with a big laugh: ‘Co'se you'll go to Master! Ain't dat jest what I been tellin' you“

“Lawdy, Lawdy! An'you makes his bed cumfa'ble fur him? Ain't dat nice! I speck! Look out you don't do it once too many. Den it ain't so fine, when somethin' begin to show on you, Miss Yaller Face.”

Through Lizzie's **lewd laughter** broke the frantic voice of a young thing bursting into tears. (60-61 강조는 인용자의 것)

이 대화를 엿들은 후 사피라는 낸시의 아침 일과였던 헨리의 방 청소를 금지하고 밤이 되면 늘 낸시에게 자신의 방문 앞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화자가 특별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부른 이 일은

헨리와 관계에서 그동안 눌러 두었던 사피라의 욕망을 자극한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리지의 “음탕한 웃음”이 상징하는 ‘성적인’ 암시와 낸시의 과도한 대응은 사피라의 욕망을 자극하고, ‘쇠퇴 서사’의 경로와 다른,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사피라는 낸시를 대하던 이전의 태도와 달리 차갑게 대할 뿐 아니라 헨리와 낸시의 관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피라와 헨리는 30년 이상 농장과 제분소를 따로 관리했고, 그렇게 각각의 영역에 몰두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 헨리가 제분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사피라 역시 농장과 저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 탁월했기에 헨리에게도 인정받지만, 헨리와 사피라 사이에 부부의 ‘친밀함’은 없었다. 공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피라가 이층집 본채에서 머무는 반면 헨리는 본채 정면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제분소에서 생활한다. 헨리는 본채에서 사피라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응접실에 머물다가 제분소로 돌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곳 방에서 잠도 잔다. 사피라와 헨리는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 있는 셈이다. 더욱이 휠체어에 앉아 기동성이 없어진 후, 사피라는 본채 1층 거실에 앉아 멀리 헨리의 제분소를 바라보곤 했다. 리지와 낸시의 대화를 들은 시점 이후 사피라는 헨리와 자신의 소원한 관계와 달리 매우 친밀해 보이는 헨리와 낸시의 관계를 질투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일례로, 제제벨의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시간, 사피라는 제분소로 일찍 돌아가 버린 그의 빈 자리를 보며 “분노를 느낀다”. 장례식 동안 헨리와 낸시 둘이 함께 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그런 헨리를 전에는 본 적이 없다는 생각”뿐 아니라 “주인이 하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헨리의) 특별한 친절함”을 보았으며, 둘의 “그 친밀한 대화(that intimate conversation)”가 무슨 내용이었을지도 알고 싶어 한다. 또

한, 그녀는 자신이 “속고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being befooled, hoodwinked)” 의심에 사로잡히고 결국 “상처 입고 회한에 찬(hurt and remorseful)” 채, 헨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밤을 보낸다(103-06). 이런 식으로 노년의 섹슈얼리티 혹은 사피라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발화되고 있진 않지만/감춰져 있지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노년의 욕망은 생산적이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통념을 반영하는 듯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가정되고 텍스트에서 암묵적으로 탈성애화된다고 볼 수 있다. 발화되지 않는 노년의 섹슈얼리티는 기존의 ‘쇠퇴 서사’ 혹은 ‘무성애’를 가정하는 경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에 낸시를 향한 사피라의 폭력적 행위의 기원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나오미 E. 모건스턴(Naomi E. Morgenstern)은 사피라의 폭력적 행위의 기원을 섹슈얼리티와의 관계에서 탐색하고 있다. 모건스턴의 주장에 따르면, 『사피라와 노예 소녀』는 캐더의 다른 어떤 소설보다 “개인적이고 자전적”이며, 저자 캐더의 동성애적 정체성이 낸시에 대한 사피라의 레즈비언 욕망에 투영된다. 모건스턴이 지적하기를, “노출되지 않는 사피라의 동기는 소설의 상실한 기원”으로서 “동성적 에로티시즘”에 있고, 낸시에 대한 욕망이 질투를 낳으며, 그 질투야말로 “사피라의 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기존의 비평들은 사피라의 “레즈비언 욕망”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187-88, 193). 캐더 자신은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그녀의 동성적 사랑과 소설적 재현에 대한 연구 계보에 모건스턴의 논의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 ‘질투’라는 심리의 ‘폭력적’ 특징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질투(jealousy)는 시기심(envy)과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데, 시기심과 질투는 인간의 타고난 ‘공격적 본능’에 기인한다.⁸⁾ 유아는 젖과 함께 만족감을 주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도 그녀의 ‘전능함’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는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중적 감정이다. 특히 젖과 사랑을 주던 어머니를 뺏길 즈음 시기심이 부상한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이와 같은 어머니-유아의 ‘이자 관계’에서 분출되는 공격적 성향의 ‘시기심’을 ‘삼자 관계’(어머니-아이-아버지)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구분한다. 사피라의 경우 낸시의 몸이 상징하는 젊음과 건강, 즉 ‘욕망의 대상이 될 만한 몸’에 대한 시기심을 품는 것과 동시에 삼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의 감정을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헨리와 낸시는 사피라의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으로 ‘상실된 몸’으로서 이중의 결핍을 더욱 분명히 상기시켜준다. 젊음과 건강의 관점에서 그들의 ‘욕망할만한 몸’은 사피라의 ‘손상된’ 몸과 대조되고, 그와 같은 위계는 요리사 리지의 “음탕한 웃음소리”에 의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사피라의 낸시를 향한 폭력의 배후에는 젊음과 건강을 누리는 ‘욕망할만한 몸’에 대한 공격적인 시기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사피라는 헨리와 낸시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망, 대상을 향한 섹슈얼리티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클라인적 의미의) 시기심과 질투를 동시에 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이 듦, 질병과 장애, 쇠퇴, 그리고 탈성애화된 (desexualized) 몸을 하나로 연결하는 ‘쇠퇴 서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쇠퇴 서사’에 저항하는, 그래서 나이 듦의 전형에 거스르는 사피라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서사가 있다. 사피라의 욕망은 노년에 대한 전형적인 쇠퇴 서사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년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공격적이고 잔혹한 놀이를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공격적

8) 한나 시걸, 이재훈 옮김, 『시기와 감사』,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참고.

이고 잔혹한 놀이는 노예제라는 인종적 위계의 환경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4. 인종과 섹슈얼리티: 사피라와 낸시 그리고 톨

사피라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쇠퇴에 대한 저항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노년에 대한 단순한 쇠퇴 서사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저항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백인 노예주라는 인종적 편견의 한계 측면에서 흑인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반동적인 요소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소설에는 인종적 위계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재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사피라의 ‘탈성화된’ 몸과 대비되는 듯한, 낸시의 ‘플라타’ 정체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과잉 섹슈얼리티’라는 편견과 그에 대한 백인의 통제 욕망이고, 또 하나는 흑인 혈통의 모녀 톨과 낸시로 이어지는 흑인 ‘보모’ 혹은 ‘가정부’에 대한 백인의 환상이다. 흑인 가정부 만들기는 흑인 섹슈얼리티를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백인 여성의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더 교묘하고 반동적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어린 화자 ‘나’는 에필로그 이전의 모든 폭력적 정서를 일거에 소거시키고 흑인 가정부의 귀환으로 완성된 과거를 회복함으로써 백인 중심의 남부사회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열망을 드러낸다.

19세기 이후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상세히 고찰하는 앤젤라 Y. 데이비스(Angela Y. Davis)의 연구는 낸시와 톨에 대한 사피라의 통제와 그 이후 백인 지배 서사가 보이는 환상을 탐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데이비스의 지적에 따르면, “노예제는 채찍뿐 아니라 일상적 성폭력에 의지”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비스는 노예제 시

대 백인의 흑인 강간을 “제도화된 강간이자 성적 억압으로서 재산권의 표현”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269). 데이비스는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집단 강간이 흑인 평등 운동을 좌절시키는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한다(270). 이러한 지적의 요점은 흑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의 폭력적 행사(이 소설에서 마틴의 예가 시사하는)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의 문란함’이라는 이미지만 노예제 이후의 지배 서사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271). 또한, 데이비스는 “흑인 여성 노동자의 91%가 가사 노동자”였음을 지적하고(151), “가사 서비스의 노동 환경이 성적 폭력에 취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이 무능하고 문란하다는 강요된 신화”에 더욱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150).

『사피라와 노예소녀』에서 낸시는 마틴에 의해서 “어린 플라타 소녀”로 호명된다(155). 낸시는 콜버트가 가정부인 킬의 딸이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낸시의 아버지는 헨리의 난봉꾼 형제 중 한 명이라는 소문과 쿠바 출신의 떠돌이 초상화가라는 소문으로만 묘사된다. 다만, 그녀가 초상화가와 외모가 닮았는데도, 콜버트가 남자들의 평판이 좋지 않아 콜버트가 남자의 자식, 이른바 “사생아(bastard)”로 취급된다(66). 낸시의 혈통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낸시가 탄생부터 ‘난잡한’ 결합의 탄생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흑인 노예 리지는 낸시가 “백인 피가 섞여서 우쭐댄다며(‘cause she’s stuck up, havin’ white blood)” 싫어하고(185), 그 얘기를 마틴에게 전달하는 블루벨(Bluebell)은 헨리와 낸시의 관계에 대해 성적인 듯한 “은밀한 암시(sly suggestiveness)”를 내비친다(184). 즉 마틴과 같은 백인에게도, 리지나 블루벨같은 흑인에게도 플라타로서 낸시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가 은연중에 불순하거나 과잉의 것으로 암시된다. 낸시의 경우처럼 19세기 미국에서 ‘이중혼’(intermarriage)의 자녀는 흑백 양

쪽으로부터 ‘난잡한’ 섹슈얼리티로 수용되곤 했다.

트레이시 B. 애보트(Traci B. Abbott)는 이 소설이 낸시의 ‘순수함’을 보여줌으로써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을 순수/호색으로 나누는 인종적 이분법을 역전”(35) 시킨다고 주장하며, 낸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캐더가 인종적 전형에 급진적 회전”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보트의 주장대로 이 소설에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편견과는 반대로 흑인 여자가 백인 남자를 쫓는 것이 아닌, 백인 남성 마틴의 호색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또한, 낸시가 마틴을 따돌리려 애쓰는 장면에서 그녀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틸과 낸시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는 사피라의 행위, 이를테면 낸시 출산 이후 틸을 “거세된 남자(Capon man)” “제프(Jeff)”에게 억지 결혼을 시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낸시에 대한 마틴의 강간 위협을 묵인하는 점은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과 플라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폭력적 측면을 매우 잘 예증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백인 중심적 환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측면은 흑인 ‘가정부’ 혹은 ‘보모’에 대한 백인 중심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를테면, 소설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은 낸시가 탈출한 지 이십오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낸시가 틸과 레이첼을 만나기 위해 백 크리크를 방문하는 시점의 이야기로서 ‘낸시의 귀향’을 다룬다. 사피라와 헨리 모두 죽고, 레이첼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다섯 살 무렵의 어린아이 ‘나’라는 화자의 시선에서 낸시의 귀향을 관찰하는 장면이다. 몬트리올에서 이십오 년 만에 돌아온 마흔네 살의 낸시는 “남편과 아이 셋의 사진”을 보여주며, 켄우드 대령 가족의 가정부로 있음을 알려준다. 은연중에 낸시는 성공적인 가정부로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듯이 재현된다. 백인 가정의

충실한 보모 역할은 어머니 톨에서 딸 낸시에게로 전승된 것이며, 충실한 보모로서의 모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어린 화자인 ‘나’는 낸시의 “움직임이 매우 침착하고 신중해서 (so smooth and measured in her movements)” 마음에 든다고 표현한다(284). 또한, 톨은 다음과 같이 낸시의 말투를 칭찬하기도 한다. “낸시! 애야! 너는 꼭 예전 체스트넛 힐의 마참 부인처럼 말하는구나! 듣기가 좋아(“Nancy, darlin’, you talks just like Mrs. Matchem, down at Chestnut Hill! I loves to hear you.”) 마참 부인은 톨의 가정부 교육을 담당했던 영국인 부인이었다. 과거 사피라가 톨에게 가정부 일을 맡긴 이유는 톨이 마참부인에게서 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톨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톨과 낸시가 백인들을 위한 가정부 교육을 잘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태도와 몸가짐 그리고 말투는 잘 훈련된 가정부의 그것이었다. 지시를 받을 때 어떻게 서있을지, 정문에서 손님을 어떻게 맞을지, 현관에서 그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요구를 살필지를 잘 알았다.

Her carriage and deportment and speech were those of a well-trained housekeeper. She knew how to stand when receiving orders, how to meet visitors at the front door, how to make them comfortable in the parlour and see to their wants. (31)

톨은 “검은 드레스, 하얀 앞치마, 깔끔한 신발과 스타킹(black dress and white apron, neat shoes and stockings)”으로 잘 정돈된 모습이 하녀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72). 톨과 낸시는 “잘 훈련된 가정부”로서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에필로그의 어린 화자는 톨과 낸시 그리고 레이첼이 함께 모여 있는 부엌을

“가장 행복한”(the pleasantest)(286) 공간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백인 화자가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하는 그곳에서 일했던 틸과 낸시는 사실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백인의 향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에 불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비스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제 시대 노예들이 가내 하인으로 호명되었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도 “흑인 여성들은 여전히 요리사, 보모, 청소부, 다용도 가사 노동자”로 일했다. 사실 가사노동은 “직업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낮은 직업”이었고, “흑인 여성은 가장 고된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멸시당했다”(Davis 147-48). 데이비스의 주장을 엄두에 둘 때, 낸시와 틸의 모습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흑인 여성의 힘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단지 백인 노예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잘 훈련받은 가정부 혹은 보모에 대한 환상의 반영이자 이상화에 그친다. 요약하면, 백인 중심의 관념에서 흑인 여성은 ‘과잉 섹슈얼리티’의 존재로서 통제되어야 할 존재거나 아니면 욕망이 거세된 채 미천한 신분으로 백인 가정을 돌보는, 길들어 있는 존재이다.

5. 나가는 말

사피라와 낸시를 비롯한 백인 3세대와 흑인 4세대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콜버트 가에는 노예제 체제라는 억압적 체제와 젊음과 늙음, 질병과 건강 혹은 돌봄,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질병을 지닌 노년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19세기라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넘어 21세기에도 여전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사피라의 질병과 돌봄의 상관관계, 그리고 장애를 지닌 노년의 몸에서 배제되어 온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전형적인 노년의

‘탈성애화’에 저항하는 비규범적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피라라는 인물의 폭력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축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나이 들과 장애는 인종의 문제와 교차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얽힘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그런데도, 캐더는 자신의 작품을 정치적으로 읽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공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반감”을 표현했다(Petrie 27). 페트리의 연구에 따르면, 캐더는 작가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당대의 좌파 비평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캐더 자신이 노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의 끔찍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체계에서 경험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의식을 창조”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Petrie 33). 특히 캐더가 이러한 견해를 나이든 소설가로서 당대의 젊은 비평가들을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임스 우드레스(James Woodress) 역시 『사피라와 노예 소녀』를 쓰던 시기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 작품이 노예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지만, 캐더는 의도적으로 그 논쟁을 벗어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Petrie 27 재인용).

우드레스와 페트리의 주장을 고려할 때, 『사피라와 노예 소녀』는 의도적으로 노예제 체제 비판의 관점보다는 그 제도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는 듯, 사피라의 인생 후반에 겪은 고통에 상당히 공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소설의 후반부 죽기 얼마 전의 사피라에 대해 (저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듯) 헨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오랜 병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는 “대담했다”(268). “나이 들고 병들어도 그녀는 전혀 기죽지 않을(After she was old and ill, she never lowered her flag)” 뿐만 아니라, 늘 “침착하고(composure)” “강인”(strength)해 보였다. 또한, 헨리는 사피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많

은 사람에게 잘해준다(You are good to a great many folks).” “가끔은 누군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다(Sometimes keeping people in their place is being good to them).” (268 강조는 인용자의 것)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라는 표현에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묵인하는 백인 중심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설사 헨리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사피라의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가 “침착하고 강인한” 것으로 비칠 지라도, 그것이 인종적 위계를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인종 체계의 기반 위에서 저자인 캐더 자신이 미학과 정치를 분리하려 했다 해도, 개인과 세계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노년의 섹슈얼리티라는 노년의 전형화된 쇠퇴 서사에 머물지 않고 비규범성으로 탈주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섹슈얼리티의 본원적 공격성이 인종적 편견과 함께 타인에 대한 폭력의 씨앗으로 작동한다.

참고문헌

- 앤젤라 Y. 데이비스, 『여성, 인종, 계급』, 황성원 옮김(2022), 아르테.
 이승은, 「남부역사의 짐과 양가적 서사: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새파이라와 노예 소녀』(*Sapphira and the Slave Girl*)」, 『현대영미소설』 25권 3호, 2018, 77-104.
 한나 시걸,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56-170.
 Abbott, Traci B., “A Good Girl Like Nancy”: Willa Cather’s *Sapphira and the Slave Girl*, *Southern Quarterly* 46, 1, 2008, 26-45.
 Cather, Willa, *Sapphira and the Slave Girl*, London: Virago, 1986.
 Chinn, Nancy, “Slavery as Illness: Medicine in Willa Cather’s *Sapphira and the Slave Girl*,” *Southern Quarterly* 40.4, 2002, 68-82.

- Ehrenreich, Barbara & Deidre English, *Witches, Midwives & Nurses: A History of Women Healers*, New York: The Feminist Press, 2010.
- Gallop, Jane, *Sexuality, Disability, and Aging: Queer Temporalities of the Phallus*, Durham: Duke UP, 2019.
- Gullette, Margaret Morganroth, "Against 'Aging'—How to Talk about Growing Older," *Theory, Culture & Society* 35, 7–8, 2018, 251–270.
- , *Agewise: Fighting the New Ageism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 Halberstam, Judith Jack, *In a Queer Time and Place*, New York: New York UP, 2005.
- Lee, Hermione, "Introduction," in *Sapphira and the Slave Girl*, London: Virago, 1986.
- Morgenstern, Naomi E., "Love Is Home—Sickness" : Nostalgia and Lesbian Desire in *Sapphira and the Slave Girl*, *Novel: A Forum on Fiction* 29, 2, 1996, 184–205.
- O' Brien, Sharon, "Willa Cather in the Country of the Ill," *The Cambridge Companion to Willa Cather*, Ed. Lindemann, Marilee, Cambridge: Cambridge UP, 2005, 146–156.
- Petrie, Paul R., "Skulking Escapist" Versus "Radical Editor": Willa Cather, the Left Critics and *Sapphira and the Slave Girl*, *The Southern Quarterly* 34, 2, 1996, 27–37.
- Salas, Angela M., "Willa Cather's *Sapphira and the Slave Girl*: Extending the Boundaries of the Body," *College Literature* 24,2, 1997, 97–108.
- Trowse, Nadeane, "Willa Cather's Condition: Disease, Doctors and Diagnoses as Social Action," *Cather Studies* 4,1, 2000, 205–24.

(투고일: 2023. 11. 12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18)

김미연
소 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자우편: meeserin@hanmail.net

[Abstract]

A Study of Disability, Aging, and Sexuality in
Sapphira and the Slave Girl

Kim, Mee-Yeon

This essay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of disability, aging, and sexuality is represented in Willa Cather's *Sapphira and the Slave Girl*. First of all, it explores how the main character Sapphira's disease, disability, and her caring role are presented especially in terms of gender norms of the nineteenth century. Next, it investigates how the old invalid woman's sexuality and her aggressive envy and jealousy lead to an evil deed which sexually endangers the slave girl Nancy. This investigation can enable to refuse to reduce aging as the decline, and it can shed light on the desire and sexuality of the aged woman. Finally, by pointing out the prejudice and fantasy about the mulatta sexuality in the white society, it shows the inequality implicated in the complex relationship of race and sexuality.

Key Words : Willa Cather, *Sapphira and the Slave Girl*, disability, aging, sexuality